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국제유가 동향 및 분석

가. 국제유가 동향

2011년 2월 21일 두바이 현물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 9월 8일 두바이 현물가격이 마지막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그리고 3월 8일 기준으로 10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1월부터 확산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반정부 시위가 리비아에서 내전상황으로 악화되어 2월부터 원유생산차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공황으로부터 벗어나 경기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여러 곳으로부터 감지되었다. 세계 석유수요도 이러한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며 2009년보다 3백만 b/d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2월과 7월을 제외하면 국제유가는 배럴 당 70~80달러 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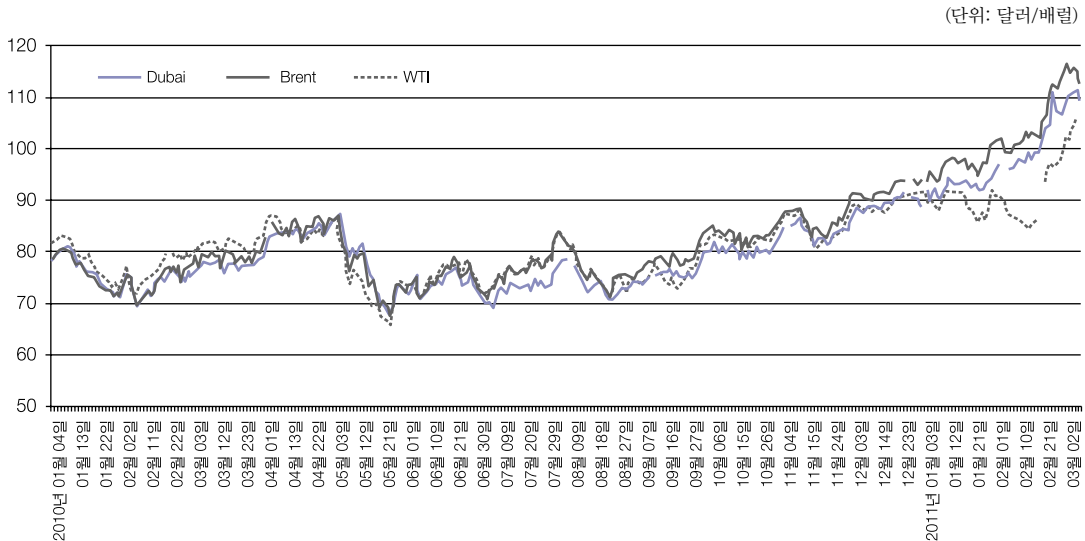
두바이 현물원유 가격이 2010년 1월 4일 배럴 당 78.27달러로 시작하여 2월 69달러 대까지 하락하였으며, 5월에 상승한 이후 7월에 다시 69달러 대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9월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여 12월 중에 90달러 대를 돌파하였으며, 12월 31일에는 88.80달러로 마감하였다. WTI와 브렌트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인 가운데 WTI는 2010년 연중 최저점을 배럴 당 65.59달러로, 최고점을 91.40달러에 기록하였으며, 12월 31일 연중 최고치로 마감하였다. 브렌트는 연중 최저점으로 67.61달러, 연중 최고점으로 94.60달러를 나타내었으며 93.72달러로 2010년을 마감하였다.

2011년 들어 국제유가는 급격한 상승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두바이 현물유가는 연초 91달러 대로 시작하여 1개월여 만에 1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브렌트 현물유가는 93달러 대로 시작하여 2월 23일 110달러를 돌파한다. 반면 WTI는 현재까지 90달러 후반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앞서 언급된 2010년에서 2011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원유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상승세로 뚜렷이 전환되었다는 것과, WTI-브렌트, 또는 WTI-두바이 원유 간 가격역전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나. 국제유가 추세 분석

2010년 평균유가는 2009년과 비교해 15달러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2008년 말과 2009년에 유가 폭락의 원인이었던 세계 경제 불황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세계 경기회복세와 미국 멕시코 만의 해상원유 누출사고로 2월부터 4월말까지 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EU 주요국들의 재정위기 우려로 유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0달러가 빠졌다. 9월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뚜렷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 허리케인 시즌과 맞물려 중국과 미국 등의 석유 다소비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른 효과이기도 하지만 더불답을 의식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금융블럭들이 금리인상을 주저함에 따라

석유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유입된 탓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에도 제기되었던 문제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석유 시장에서 상승모멘텀이 작용할 때마다 유가 상승폭을 확대시킨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10년 말부터 지정학적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튀니지의 26세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북아프리카와 중동권의 산유국들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튀니지 사태가 이집트로 번졌던 2011년 2월 초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원유공급 차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비아로 소요사태가 확산되고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면서 유가는 추가 상승모멘텀을 확보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이어 또다시 국제유가 최고치가 경신

〈표 1〉 2010년 국제유가 분기별 추이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09년	2010년					2011년
		1/4	2/4	3/4	4/4	평균	
두바이	61.92	75.90	78.18	73.99	84.27	78.13	97.99
브렌트	61.73	76.93	78.35	76.91	86.90	79.66	102.24
WTI	61.94	78.68	77.83	76.05	85.16	79.49	91.40

주: 2011년 평균가격은 3월 8일까지 입력된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 당 140달러까지 폭등했을 당시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원유 거래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의 역할과 세계 석유수요에 대한 기대심리는 그 당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 지정학적 문제의 심각성과 경제적 환경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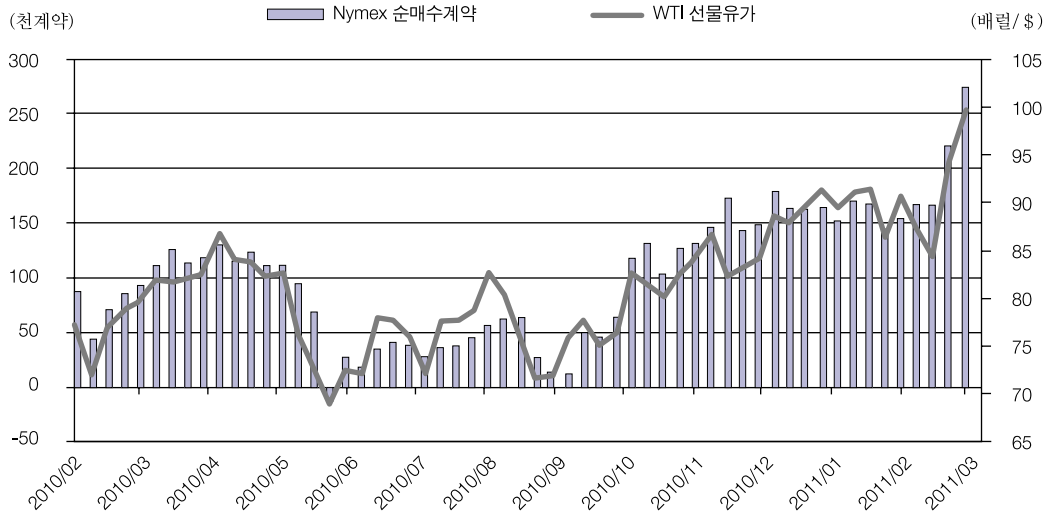
다. 유가 변동요인 분석

2010년 국제유가 변동요인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석유수요와 관계된 변수들의 변화다. 공급과 관련된 변수에 의한 유가 변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미국 멕시코 만 해상 원유누출 사고가 있긴 하였지만 유가에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쳤으며, 7~9월 허리케인 시즌에는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석유시설 피해가 크지 않아 역시 예년에 비해 유가에 미친 영향은 작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의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로 부터의 회복이

나 아니면 다시 경제가 불황에 접어드는 더블딥이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였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는 분명히 전년보다 두드러지게 약진하였으며, 석유수요도 전년대비 284만 b/d¹⁾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2009년과 비교해 15달러 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부터의 탈출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확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블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세계 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물가와 주요국들의 재정적자 확대 등은 항상 잠재된 위협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스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재정위기 문제는 유럽 전역의 경기침체 우려를 야기시켰고 유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더블딥 우려가 없었더라면 2010년 평균유가는 80달러를 훨씬 웃돌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에 근거한 유가상승은 석유시장의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이는 석유시장 뿐만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 및 곡물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로 결국 지나친 금융완화 정책이 고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

1) IEA Oil Market Report, 2011년 2월호

[그림 2] WTI유가와 NYMEX-WTI 비상업용 순매수 계약규모



자료: NYMEX, CFTC

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들어 석유시장의 모든 시선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향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오만, 바레인, 사우디, 이란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는 독재정권의 자진해산과 대통령 퇴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석유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선 국가들의 소요사태에서는 실질적인 원유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리비아 사태가 국가 내전으로 발전함에 따라 리비아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상당부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2010년에 리비아가 생산한 원유는 155만b/d이다. 이 가운데 50%가 넘는 약 85만b/d가 이번 소요사태로 생산중단된 것으로 IEA는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월 초 주춤하던 국제유가는 2월 14일부터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여 브렌트 원유 기준으로 3월 2일까지 13일 만에 16달러 가까이 상승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사우디, 이란, 오만, 예멘, 그리고 바레인 등에서의 동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단계적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반정부 시위 확산 정도와 원유공급 차질 규모가 석유시장의 최대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 이는 2010년의 유가변동을 좌지우지했던 수요요인과 반대로 올해는 공급요인이 석유시장을 지배할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한편, WTI 가격이 브렌트 원유가격을 하회하는 유종간 가격 역전현상이 2010년 2분기부터 발생하여 2011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되었던 WTI의 가격 대표성(Benchmark Price)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WTI 원유는 미국 외로 반출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WTI 가격이 세계 석유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그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의 석유재고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유럽에서는 북해 유전의 생산 감소와 정유사 파업 등으로 수급이 빠듯해짐에 따라 WTI와 브렌트 가격 간 역전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리비아 사태로 유럽으로 수송되는 리비아 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일부 생산 중단된 반면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오클라호마 쿠싱지역의 WTI 원유재고 급증으로 가격 역전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오클라호마 주 쿠싱지역 WTI 원유재고는 4천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

가.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황으로 세계 석유수요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데 이어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석유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2월)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2.9백만b/d 증가한 87.8백만b/d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03년 3백만b/d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86.7백만b/d)과 비교해서도 1.1백만b/d 증가하였다.

2010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를 이끈 것은 단연 비

〈표 2〉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b/d)

구 분	2009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년	'11년
북미	23.3	23.6	23.8	24.2	24.1	23.9	23.9	23.8	24.2	24.1	24.0	0.6	0.1
유럽	14.5	14.2	14.1	14.8	14.6	14.4	14.3	14.1	14.6	14.6	14.4	-0.1	0.0
태평양	7.7	8.2	7.3	7.6	8.0	7.8	8.2	7.2	7.3	7.9	7.6	0.1	-0.2
OECD계	45.4	45.9	45.2	46.6	46.8	46.1	46.4	45.0	46.2	46.6	46.0	0.7	-0.1
중국	8.4	8.9	9.4	9.2	10.0	9.4	9.8	10.0	9.9	10.1	10.0	1.0	0.6
기타 아시아	10.0	10.3	10.4	10.0	10.5	10.3	10.6	10.7	10.3	10.8	10.6	0.3	0.3
비OECD계	39.5	40.4	41.7	42.0	42.5	41.7	42.3	43.3	43.7	43.6	43.2	2.2	1.5
전세계	85.0	86.4	86.9	88.6	89.3	87.8	88.7	88.4	89.8	90.2	89.3	2.8	1.5

주: *는 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년 2월호

OECD 국가들이었다. OECD 국가 전체의 전년대비 석유수요 증가폭이 70만b/d 인데 반해 비OECD 국가 전체의 증가폭은 2.1백만b/d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국가로 석유수요 역시 전년대비 1백만b/d 증가하며 전체 비OECD 수요 증가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OECD 지역에서는 북미지역의 석유수요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북미지역 석유수요는 2009년 대비 62만b/d 증가하여 전체 OECD 석유수요 증가분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지인 미국 경제가 2010년 들어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하반기부터 고용지표 개선과 산업활동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도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석유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010년 내내 재정위기 우려에 시달렸던 유럽지역의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6만b/d 가량 감소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2010년 하절기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 길게 나타나면서 발전용 증류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2010년 석유소비도 전년대비 12만b/d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석유소비는 경제의 성숙도와 에너지효율 추구 및 저탄소 경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2008년 경제불황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가 2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2010년의 경기회복이 석유수요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OECD 전체의 석유수요는 2008년보다 1.4백만b/d 낮으며 2011년 수요는 2010년보다

10만b/d 가량 감소할 것으로 IEA는 전망하고 있다.

비OECD 전체 석유수요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10.3%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0%대 성장률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석유소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천연가스 등의 대체연료 사용을 늘리고자 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신규차량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석유수요 증가수준은 2010년 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세계 석유공급

2010년 세계 석유공급은 87.3백만b/d에 이르는 것으로 IEA는 잠정집계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2.1백만b/d 증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2010년 석유수요와 비교해보면 40만b/d가 낮다. 이는 OPEC이 적정수준 이상의 원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어느 정도 통제했기 때문이다. OPEC은 2010년에 34.5백만b/d의 원유를 공급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백만b/d 증가한 수치이지만 2009년 1월 OPEC 총회에서 생산쿼터 감산을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증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즉, OPEC은 여전히 충분한 여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상반기까지 6백만b/d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회원국들이 원유공급을 늘리면서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12월에 5.3

〈표 3〉 세계 석유공급 동향

(단위: 백만b/d)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OPEC*	33.5	34.2	34.2	34.6	34.9	34.5	-	-	-	-	-
Call_on OPEC	33.3	34.0	34.1	35.8	36.1	35.0	35.5	35.2	36.2	36.2	35.8
비OPEC*	51.7	52.4	52.8	52.8	53.2	52.8	53.2	53.2	53.6	54.0	53.5
전세계	85.2	86.5	87.1	87.5	88.2	87.3	-	-	-	-	-

주: *는 전망치이며 OPEC 회원국들의 산유량은 OPEC 생산쿼터 통제에 따라 전망하지 않음.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년 2월호

백만b/d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C 회원국들의 원유공급은 생산쿼터의 영향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들어 튀니지를 시작으로 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반정부 시위확산으로 국제유가는 1월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OPEC 산유국들의 원유생산도 증가하여 1월 기준으로 전월대비 50만b/d 증가한 35.6백만b/d를 생산하였다. 2월 들어 리비아로 반정부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OPEC 원유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OPEC회원국인 리비아에서 소요사태 악화로 일부 원유생산시설이 가동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리비아 원유생산차질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월말부터 생산을 1월의 833만b/d보다 70만b/d 가량 증가한 900만b/d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수급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리비아 사태가 중동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으로 확산되어 이들 국가의 원유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 세계 원유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2010년 비OPEC의 원유공급은 52.8백만b/d로 전년대비 1.1백만b/d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에서는 4월의 멕시코만 원유누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생산이 전년대비 36만b/d 증가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 생산증대의 영향으로 원유생산이 전년대비 13만b/d 증가하였다. OECD 유럽에서는 북해유전의 노후화로 전년대비 36만b/d의 원유생산 감소가 있었던 반면,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에서는 원유생산이 29만b/d 증가하였다. 중국의 원유생산이 전년대비 21만b/d 증가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한편, 바이오연료의 공급도 전년대비 23만b/d 증가하여 전체 비OPEC 원유생산 증가분의 20% 이상을 담당하였다. IEA에 따르면 2011년 비OPEC산유국의 전체 원유공급은 53.5백만b/d로 2010년 대비 7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의 원유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20만b/d, 15만b/d, 12만b/d 증가하며 전체 비OPEC 생산 증가분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연료도 2011년에 전년대비 17만b/d 증가한 2백만b/d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OECD 유럽의 원유생산 감소추세는 북해유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2011년 석유시장 전망

2011년 시작부터 세계 석유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소요사태가 심리적 불안에 이어 실질적인 원유생산 차질로 이어지며 국제유가를 단숨에 배럴 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3월 현재 리비아 사태가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양상을 띄고 있어 리비아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랍권의 정치적 질서 및 국제사회와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설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2차 석유파동을 제외하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그동안 국제유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북아프리카-중동 반정부 시위확산과 리비아 사태는 전개양상에 따라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리비아 사태를 통해 이미

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확산되어 원유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리비아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제2의 산유국인 이란에서 재발된다면 세계 석유시장은 제3차 석유파동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비아 내전이 단기 내에 종결되고 주변국으로 그 여파가 제한적으로만 진행된다면 국제유가와 세계 경제에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리비아 사태를 통해 향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치·사회질서의 재편과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관계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향후 가능성을 가늠해 보면, 첫 번째 리비아 사태의 단기 종결과 반정부 시위의 제한적 확산을 가정할 경우 국제유가는 곧바로 90달러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산유국으로

〈표 4〉 주요기관별 2011년 국제유가 전망(2월)

(단위: \$/배럴)

전망 기관	기준 유종	2011년				
		연간	1/4	2/4	3/4	4/4
CGES	브렌트	100.70	97.50	103.20	103.20	98.90
CERA	WTI	92.38	90.19	94.00	91.67	93.67
	브렌트	99.91	100.97	102.33	98.33	98.00
	두바이	96.77	97.64	98.87	94.84	95.72
EIA	WTI	93.26	91.06	93.00	94.00	95.00
PIRA	WTI	104.30	94.30	108.50	106.85	107.50
	브렌트	112.95	106.90	118.35	112.00	114.50

주: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어 원유생산의 추가차질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2008년과 비슷한 최고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반정부 시위의 기조가 경제적인 이유보다 정치변화에 대한 갈망이 클 경우,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이들 국가의 원유생산이 타격을 입을 경우 전 세계는 제3차 석유파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시나리오부터는 세계가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전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한 듯 보이지만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우려, 전 세계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여전히 주요 경제대국들의 가계 소비 수준이 저조하다는 점은 세계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이 유가 폭등으로 가중된다면, 세계 경제는 오히려 정상궤도에서 점점 더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유가 폭등 자체를 염려하기 보다는 이후의 전 세계 경제 불황 가능성이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국제유가는 자연스럽게 2008년 말 수준으로 하락하며 역사의 반복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속에 현 리비아 사태를 전 세계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